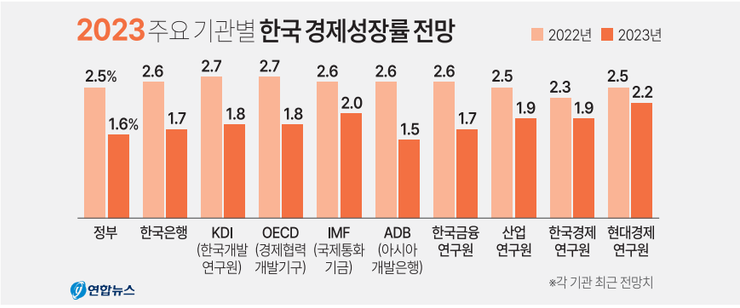
창사 64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PARAVIEW Since 1995
다르게 짓고 바르게 짓는
삼일건설 · 삼일파라뷰

제8343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음력 11월 29일)



고금리·에너지 수급 불안

‘경제 한파 온다’

정부, 내년 성장률 1.6% 전망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저치

물가상승률 3.5%로 점차 둔화

정부는 내년 한국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은 3.5%로 예상해 올해 예상치인 5.1%에서 상당 폭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기사 13면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9%p 낮아졌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2% 미만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20년 성장률을 0.1%,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2009년 성장률을 -1.5% 내외 등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초에는 IMF와의 협의를 거쳐 거시경제 관리 지표로서 1998년 성장률을 1%로 제시했다.

연초 또는 그 전해 말에 제시한 수치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인 셈이다.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과 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엄중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전망치는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주요 기관과 비교해보면 한국개발연구원(KDI·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은행(1.7%) 등 보다도 낮다.

지난 10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5% 줄어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바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되는 만큼 한국 경제도 그 여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내년 상반기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하반기에 대외 여건 개선 등으로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에 주요 부문이 올해보다 둔화하거나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통관 기준)은 내년에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의 위축 등으로 2020년(-5.5%) 이후 3년 만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간 소비는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고용 둔화, 자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4.6% 증가에서 내년 2.5% 증가로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봤다.

내년 설비투자는 2.8%, 건설투자는 0.4% 각각 감소하며 올해에 이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이 악재로 꼽혔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의 경우 2.6%에서 2.5%로 전망치를 소폭 내렸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에 따라 물가 오름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봤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 등에 따라 공공요금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세의 둔화 폭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희망2023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성금 접수 계좌
• 광주사랑의열매 : 053-107-999990(광주은행)
• 전남사랑의열매 : 301-4000-3000-01(농협은행)

전남 우주 발사체 산업 육성 ‘날개’

전남-경남-대전 ‘삼각축’ 우주산업클러스터 확정

道, 오늘 1조6천억원 규모 24개 핵심 사업 발표

정부가 전남-경남-대전을 삼각축으로 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확정하면서 고흥을 중심으로 한 전남도의 우주산업 육성계획이 날개를 달았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전남-경남-대전을 삼각축으로 잇게 된다.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고흥),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 대전은 연구·인력 개발 특화지구다.

정부는 2045년 우주 발사체에 사람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로 정책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주 경제 영토 확장 차원에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무인탐사)을 추진해 독자적인 탐사 능력을 갖추는 한편, 2045년엔 우주인을 태운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발사체와 발사장,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정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조5천억원까지 늘리고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등 우주 정책 추진 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발사체와 관련, 누리호를 비롯해 차세대 발사체, 소형 위성용 발사체 등 여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류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발사체 정책은 고흥 발사체 특화지구를 중심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전남도는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가 고흥에 구축돼 있는 만큼 민간발사장 확충 등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발사체 관련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오전 1조6천억원(2022-2031년) 규모의 전남도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8개 분야 24개 주요 핵심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의 계획은 ▲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민간 우주개발 핵심 인프라 구축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고체발사시설 구축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이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돼 글로벌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 우주발사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했다”며 “향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정책 전환을 위해 고흥에 발사체 관련 핵심 인프라 확충과 관련 앵커기업 유치 등 집적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늘어나는 확진자 광주·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천 명대를 육박하는 등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광주 2천825명·전남 3천87명 등 전국적으로 8만8천172명으로 98일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애리 기자

코로나19 정점 향해 상승곡선

광주·전남 신규 확진자 6천명 돌파 초읽기

광주·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천명에 육박하는 등 재유행 정점을 향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2천825명, 전남 3천87명 등 총 5천91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5천139명(광주 1천974명·전남 3천165명)에 이어 이틀 연속 5천명대를 기록하며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의 경우 주간 확진자는 일 평균 2천134명으로 2주 전 1천952명보다 9.3% 증가했고 최근에는 증가율 등락을 유지하며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 재감염률은 17%로 6명 중 1명이 재감염됐다. 특히 10대 청소년 확진자 비율이 15%로 지난달보다 2% 가량 증가했는데 가족과 학교 등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광주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0월 3주 이후 계속해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은 주간 일 평균 확진자 2천267명, 감염 재생산지수 1.08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가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됐을 뿐 아니라 기존 백신보다 4배 이상 효과가 높고 이상 사례 신고도 10배 이상 낮아 매우 안전하다”며 “현재 상황에선 무엇보다 적극적인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동복댐 저수율 27.08%

물 공급 가능 일수 : 147일

Today

광주·전남스타브랜드를 키우자 9면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14면
광주여대 배구·농구부 창단 16면